

아랫장 야시장 등 약자지결 방문객 60%가 외지관광객
 국립골목·문화의 거리 식당 국밥골목·문화의 거리 식당
 문전성시 이루어 매출 증가
 먹을거리와 문화예술 융합 체류형 관광지로 자리매김

순천 관광 500만명...구매 파워 효과 톡톡

올 1~2월 81만여명 방문
 작년 동기보다 35% 급증

순천만국가정원 등을 방문한 500만 관광객이 순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천시는 지난해 기준 순천만국가정원 등을 방문한 500만명의 관광객을 순천 경제의 실질적인 바잉 파워로 이어가기 위해 야시장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야시장 활성화...체류형 관광지로 거듭나다=순천만국가정원 등을 찾아오는 관광객을 도심으로 끌어들이고 체류형 관광으로 유도하고자 지난해 12월부터 아랫장 야시장을 개장했다.

아랫장 야시장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2월 설문조사 결과 외부 관광객이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 78%는 순천에서 숙박하는 등 체류형 관광객이었다.

야시장이 먹을거리와 문화예술이라는 새로운 콘텐트와 융합되면서 순천만국가정원 등 지역 관광지와 연계되는 시너지 효과로 체류형 관광지로 변모하고 있다는 게 순천시의 설명이다.

◇순천 찾는 관광객 급증...지역경제 견인한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순천시 주요 유료 관광지 16개소에 대해 올해 1~2월 방문객을 조사한 결과 81만7000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0만5800여명 보다 35%가 증가한 수치다. 관광객이 증가한 곳은 드라마촬영장 54.1%, 순천만국가정원 39.1%, 낙안읍성이 34.4% 순이었다.

관광객이 늘면서 옷장 국밥골목과 문화의거리 식당 등은 30분 이상을 기다려야 식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또 문화의거리 내 상가들은 지난해 대비 5% 이상의 매출증대와 10% 이상의 인구유입 증가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식당 등 주변 상가 매출로 이어져 실질적인 소득과 연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옷장 국밥 운영 점포 20개소는 올 2월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에 절반씩 휴무를 했으나, 주말에 찾아오는 관광객의 불편 해소와 구매력을 높이기 위해 3월부터는 휴무를 월요일과 화요일로 변경·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년 동안 신축하거나 오래된 모델을 리모델링한 게스트하우스도 43개소나 늘었으며, 올해도 지난 3개월 동안 10개소가 새롭게 문을 열었다. 또 연향동이나 조례동 등 신도심을 방문하는 관광객도 증가 추세다.

연향동에서 주얼리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한 상인은 "최근 물건을 구매하는 손님 중 70% 정도가 외지 관광객"이라고 말했다.



순천 야시장이 관광객과 지역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순천만국가정원 내에 조성된 튜립 꽃동산이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500만 바잉파워...신구매 동력 만든다=시는 열차를 이용하는 젊은 관광객인 '내일로' 관광객을 위해 역사 인근 비어있는 농협창고를 이용한 먹을거리와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청년문화광장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며, 오는 9월 개장할 계획이다.

도심 체류형 관광의 중심이 될 향동과 중앙동 일대 순천부유성복원화사업도 2018년까지 500억원을 투입해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창작촌 조성 등 관광자원화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원도심의 협소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63면 규모의 옷장 주차장 확장공사에서 오는 5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연향동 신도심에도 주차 공간 확충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조종훈 순천시장은 "500만 바잉파워를 순천의 경제로 끌어들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삶도 윤택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kwangju.co.kr

잘사는 농촌 만들기...도농 상생 정책 강화

로컬푸드 직매장 내달 오픈...도시텃밭·농산물 수출도 활기

순천시가 잘사는 복지 농촌을 목표로 도농 상생 정책을 강화해 성과를 내고 있다.

도농복합도시인 순천시는 농촌에는 희망을, 도시민에게는 믿음을 주는 도농 상생의 농업 정책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순천형 로컬푸드 출범=지역 농민들이 생산한 먹을거리를 그 지역 안에서 소비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내달 오픈을 앞두고 있다.

농가에는 농산물 가격 안정을 통한 소득 증대와 도시 소비자들에게는 안전한 먹을거리를 보장하는 로컬푸드 육성을 위해 지난 2014년 순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추진에 나섰다.

특히 순천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고 주인이 되는 순천형 로컬푸드를 위해 지난해 10월 1일 로컬푸드 법인 설립 조례를 제정하고 로컬푸드 주주모집 시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1월 생산자, 소비자, 시민, 사회단체 등이 다수 참여하는 민관 협력법인 설립을 위해 자본금을 모집하고 1089명의 주주를 탄생시켰으며, 2월 24일 민·관 공동 출자 법인으로 로컬푸드(주)를 공식 출범했다.

순천 로컬푸드(주)는 직매장 운영과 직거래 장터 개설, 생산농가 팸투어 등 다양한 순천형 로컬푸드 사업을 전담하게 된다.

이와 함께 로컬푸드 직매장은 순천만국가정원 동문 마을 사회적 기업관을 증축 리모델링하고, 이번 달 임시 개장해 시험 운영을 거쳐 5월에 정식 오픈할 예정이다.

◇도시텃밭 분양·농산물 해외 판촉=시민들



조종훈 순천시장이 공직자와 시민 등을 대상으로 '순천형 로컬푸드 사업의 성공적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이 도심 속에서 농사 체험과 건전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도시텃밭을 분양 운영하고 있다. 시는 신대 도시농업공원에 220개, 조례 텃밭공원에 40개, 연향 도시농업체험학습원 17개 등 3개소에 오는 11월까지 분양한다.

시는 농산물 해외 판촉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도 집중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순천에서 생산 가공된 보리꽃 약과, 쌀과자, 장류 등 10여 종의 식품이 태국 수출길에 오르기도 했다.

시는 매년 2000만명 이상의 외국 관광객이 방문하는 태국 내 순천 소재 수출업체의 현지 판매를 이용해 시장 조사와 상품 개발을 위한 전략 점포인 안테나 스툴도 운영할 예정이다.

◇순천시장 농특산물 품질 인증제도=시는 농특산물의 품질 향상을 위한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순천시장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2016년 1월 1일부터 3년간 순천시장 품질인증 상표 사용을 허가할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품질 인증 최종 심의회를 거쳐 조정 고추장, 된장 등 4개 업체 29품목이 통과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kwangju.co.kr

순천경찰, 농번기 농산물 절도 예방 순찰·검문 강화

순천경찰이 본격적인 농번기철을 맞아 빈집털이와 농산물 절도 예방을 위한 순찰과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있다.

순천경찰은 검문검색 과정에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 주민의 자율 방범의식을 높이기 위해 관내 파출소(8개소)별로 지역 특산물이 표시된 '우리고장 지킴이' 인식 스티커 4000매를 제작·배포했다.

방범활동과 검문검색 강화, 스티커제작·배포 등의 활동으로 울타리 농산물 절도 사건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명호 순천경찰서장은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일터에서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방범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특히 농산물창고, 예



순천경찰이 지역민의 차량에 '우리고장 지킴이' 인식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

약순찰체 등을 통해 순찰선을 정하고, 범죄를 사전 차단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kwangju.co.kr

외국인들에게 더 사랑받는 가장 제주도다운 리조트

환상의 섬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속에서 힐링하세요!

가족, 연인, 기업워크숍, 수학여행단 등 예약 064-739-8899

제주아이브

동나무 독채객실	편안도움을 직접 수취하여 정성껏 마련한 프라이빗한 동나무 독채객실
레지던스형객실	바다전망과 2인스파클 보유한 레지던스형 리조트 타입의 객실
골프투어 최적지	레이크힐스cc, 우리들cc, 롯데스카이힐스, 링크스cc, 4개골프장 5분거리, 골프투어 최적지(단, 차량이동시간임)
한라산등반 최적지	

변지유 패션

신사옥이전 기념세일

4월 5일 ~ 4월 30일까지

50%~80%

Tel. 062,222,7205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 35-1